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희망찬 2010년 새해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작년의 일이지만 성탄절을 기다리며 저희들에게는 적지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거의 두달전부터 저희 해변교회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이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성경공부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감당하는 중에 많은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이 저희를 생각할 때에 단순히 필요한 물질을 조달해 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거나, 저희들의 사역이 복음과 관계없는 자선사업 정도로 비추어 질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동안 작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크게 두드러짐이 없이 잘 지나 왔는데, 이제 드디어 모두들 손꼽아 기대하는 선물다운 선물을 주어야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한 저희들의 사랑이 이 선물의 크기에 따라 판단 받지는 않을까 많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는 중에 각자의 사진을 잘 찍어서 좋은 프레임에 넣어 성경 말씀과 함께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사진이라는 것은 사진에 찍히는 것 뿐이지, 자신의 사진을 인화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위해 우선 개인별 사진을 찍고, 포토샵으로 편집을 하고, 시내의 사진관에서 인화를 하고, 이쁜 사진 프레임에 넣어서 선물로 주면 값으로 계산 할 수 없는 기억에 남는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달 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인물 사진 찍는 방법을 연구하고, 천 가게에서 사진 배경에 적합한 천을 사고, 마침내 이 아이들의 많은 기대 속에 지금까지 한번도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자연이 아닌 하늘색 천을 배경으로, 혼자서, 부동 자세로 서서, 한 순간을 위해 정면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면 동양인 답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었는데, 이 날 촬영은 예상과 달리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애를 써도 그 자연스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자세도 경직되고, 때론 얼굴도 일그러지고, 눈도 계속 깜박거리어서 도저히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준비와 두 주간에 걸친 사진 촬영이었지만 기록 보존용이라면 모를까 선물로 줄만한 사진은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저의 무능함을 탓하며 이들에게 줄만한 다른 선물을 빨리 찾아야만 하는 어려운 고민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어서 좋은 선물이 아니라, 이들이 받아서 좋을 선물을 찾기로 하고 이들의 필요를 찬찬히 살펴 봅니다. 저희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주변은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특별히 이들이 신는 신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도, 학교에 갈 때도, 밖에서 놀 때도 이곳 아이들은 슬리퍼를 신습니다. 원래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이번 성탄절에 이들이 신어보기 힘든 새 신발을 선물하면 정말 기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살 신발의 색깔과 크기를 가능하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을 남,녀로 구분하여 줄을 세우고 나이와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몇번이나 돌고 돌아서 마침내 아이들이 좋아 할만한 신발들을 장만 했습니다.

마침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두 주머니의 신발을 마을 입구까지 차로 신고 가서, 그 이후로부터 산타 할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어깨에 둘러 메고 어렵게 교회에 도착 했습니다. 일찍부터 교회 안에 아이들이 몰려 들어 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몇몇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같이 예배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후 모두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물을 한 시간이나 넘게 기쁨과 흥분 가운데 나누어 주었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기쁨에 넘쳐서 뛰어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선물 준비로 인한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우습게도 오래전 어릴적 노랫말이 생각 났습니다. ♪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달겠네' ♪

여러분의 후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기쁨을 제가 이곳에서 크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과 이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곳의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얼마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e-Mail을 받았습니다. 구 소련 지역의 이슬람권에서 저와 같은 계통의 IT 관련 일을 하며 복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워낙 추운 곳에 오래 계셔서 몸이 많이 약해졌고, 또한 제가 하고 있는 IT 관련 사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시면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저희가 있는 이곳에 약 6개월간 머물고 싶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곳에 오는 것으로 이미 결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이 각종 분쟁으로 인한 여행 제한 위험 지역이라고 말할 틈도 없이 저희는 이들을 환영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일면식이 전혀 없던 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6개월간 머물 방을 구하고, 간단한 살림도구를 장만하는등 이곳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관계처럼 거의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얼굴 표정은 물론 대화의 내용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착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곳의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벌써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는 듯한 말들과 이곳의 불편함들을 이야기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저희들이 먼저 저들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했다면 얼마나 죄송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입을 통하여 그동안 선교지에서 그들이 겪은 육신적인 어려움, 사람들간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듣게 됨에 따라 이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전혀 생각지 못한 이곳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저희가 사역하는 학교에서 같이 지내고, 또한 해변 교회에 같이 방문하여 그곳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것이 이곳 생활의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역시 선교사답게 해변 교회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처음 보는 어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에 정착한지 3주 정도 지난후, 이들은 어느 때와는 다르게 거의 일주일간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들이 입버릇 처럼 이야기 하던 타지역으로 휴가차 여행을 떠난 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마침내 나타났는데, 전혀 뜻밖에도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안식년을 앞당겨 선교지로 빨리 돌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소식이 없던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이서 두문불출하며 그 더운 방안에서 은혜 가운데 부흥회를 했답니다. 이곳에서 생활한 짧은 시간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깨닫고, 찬양과 회개의 부흥회를 돌이서 했답니다. 이제는 떠나는 사역지가 너무도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도 보고 싶답니다.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6개월 예정으로 왔는데,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하나님은 한 달도 못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도 이들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들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 분들은 기쁨으로 이곳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좋은 기억을 남기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최근 연락으로는 2월 중으로 떠나 왔던 선교지로 다시 들어 간다고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사 42:3)**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